

News

‘패닉바잉’에 3분기 가계 빚 1700조 육박... 사상 최대

머니S

올 3분기 가계 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자금 마련, 패닉바잉, 빚투 등에 따른 결과...
“3분기 중 주택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확대됐다”

글로벌 성적표 희비 쌍곡선...국민·하나 ‘웃고’ 신한·우리 ‘울고’

데일리안

시중은행 올 3분기 해외 실적 부문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수합병 등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부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규제 우회로 찾아라...은행 대출 차단 풍선효과 커진다

데일리안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제 2금융권 대출 혹은 신탁 상품을 활용 등 우회로 찾아...
“부동산 시장을 향하는 레버리지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우리銀·KB증권 라임펀드 先배상, 결국 해 넘긴다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던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이 코로나19 여파로 해를 넘기게 돼... 우리은행은 최대 판매사로 판매금액 3577억원...
“라임 무역펀드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1~3분기 순이익 6.1% 증가

연합뉴스

국내 보험사들의 1~3분기 당기순이익이 5조5천7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
“저축성 보험 실적 호조 덕분에 보험 영업 손실이 4천83억원가량 축소된 영향이 컸다”... “특히 은행에서 저축성 보험이 많이 팔렸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안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낸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대상이 보험사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
그동안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 발기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해 임직원에게 부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증징계 유지될까...오늘 증선위 심의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증징계 결정이 유지될지 주목...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전·현직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진격의 코스피’...증권사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나

시사저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져... 브로커리지 부문과 관련된 지표들이 반등...
“증권사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국내 증시의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4분기 실적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